



한-베 수교 30주년 회고와 전망: 베트남 전문가 인터뷰 - 사제동행

배양수(부산외대 베트남어과)

백용훈(단국대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김주영(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초 록

이번 이슈페이퍼는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베트남 유학 1세대이자 양국의 민간교류와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노력해온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배양수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공산권으로의 유학이 쉽지 않았던 1990년대 초반 베트남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베트남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져온 배양수 교수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 양국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창구이다. 배양수 교수와 사제지간인 단국대 백용훈 교수를 특별히 인터뷰어로 초대하여 배양수 교수의 유학 시절,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참여한 민간교류 활동, 교육을 통한 후속세대의 양성,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향후 전망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I 인터뷰의 구상 배경

김주영(이하 김): 2022년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지 30주년에 접어드는 해이다. 1992년에 이루어진 수교는 양국 관계의 변곡점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64년 베트남 전쟁 파병, 1975년 북베트남의 베트남 통일에 따른 관계 단절 등 냉전체제 하의 진영논리는 양국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조건을 구성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 접어들어 펼쳐진 우호적인 국면은 긴장관계를 전환시키며 수교의 주춧돌을 놓았다. 북베트남의 사이공 함락 후 탈출하지 못한 한국 대사들의 무사 귀환, 직접무역의 개시, 베트남올림픽선수단의 서울올림픽대회 참가 등 양국은 이전과 다른 신호를 주고받았고,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신중한 계산에 따라 1992년 12월 22일 공식적인 수교를 맺었다.¹⁾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오랜 시간 베트남을 애정하며 공부하고 일해 온 베트남 전문가인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배양수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배양수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를 졸업하고, 하노이사범대학교 어문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베트남 문학작품인 『끼에우전』과 한국의 『춘향전』을 비교한 석사학위논문은 베트남 현지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배양수 교수는 하노이사범대학교 어문학과에서 100번째로 박사학위를 받은 자본주의권 출신의 외국인이라는 이례적인 기록도 가지고 있다. 졸업 직후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교수로 임용되어 베트남어와 문학에 관한 다수의 책을 집필하고 번역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공식적인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인 1988년 처음 베트남을 방문한 배양수 교수는 양국 관계의 거시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이에 조응하며 민간 차원에서 양국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공산권으로의 유학이 쉽지 않았던 1990년대 초반 베트남 유학을 결정한 배양수 교수의 고된 여정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경직되어 있던 양국 관계의 일면을 보여준다. 배양수 교수는 호찌민시종합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았지만, 자본주의권 학생을 부담스러워 하는 대학 측의 입장으로 인해 하노이사범대학교로 갑작스럽게 진학하게 되었다. 베트남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베트남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져온 배양수 교수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 양국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창구이다. 이슈페이퍼에

1) 최은봉·권예진. 2021. “한국은 적대국인 베트남을 어떻게 포용하게 되었는가?: 1992년 한국-베트남 수교와 인정의 삼중구조.” 『담론201』 24(3): 83-121.

서는 배양수 교수의 유학 시절,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재직하면서 참여한 민간교류 활동, 교육을 통한 후속세대의 양성,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관한 향후 전망 등을 두루 보여줄 것이다.

배양수 교수의 이야기를 보다 풍부하게 전달하고자 특별한 인터뷰어를 한 분 더 초대하였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공동연구원인 단국대 백용훈 교수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졸업생으로 배양수 교수와 사제지간이다. 백용훈 교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베트남 공동체 복지와 보건의료에 관한 지역 간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어문학에서 시작해 베트남의 사회문화, 경제사회학, 비교사회학, 사회자본, 복지, 의료서비스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백용훈 교수는 베트남 지역 연구 후속세대로서 인터뷰에 함께 참여하였다.



〈사진 1〉 2022년 11월 18일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배양수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출처: 아세안익스프레스 박명기 대표)

인터뷰의 주요 내용

백용훈(이하 백): 베트남과 한국의 수교가 벌써 30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유학 1세대로서 지난 30년에 대한 소회를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배양수(이하 배):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1988년 베트남을 처음 방문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베트남 도이머이(Đôi mới: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 직후에 어려웠던 그때의 경제 상황과 지금의 베트남을 비교해보면 큰 발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국제공항의 모습은 한국 시골의 역사(驛舍)와 같았어요. 지금은 현대화된 국제공항을 보면서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베트남의 발전을 느껴요.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찾고, 또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두 국가 사이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특히 심화된 경제관계의 측면을 보면서 베트남 연구자로서 기쁩니다.

백: 선생님께서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신 건데, 혹시 문학 연구에 입문한 직접적인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현지에서 경험한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처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의 경험이에요.

배: 베트남 기자들로부터 받았던 많은 질문 중 하나도 “왜 베트남어를 공부했습니까?”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베트남어과에 진학할 때는 특별한 목표가 있지 않았어요. 실제 시작한 시험 점수에 맞춰서 베트남어과를 갔던 거죠. 그래도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도이머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는 무조건 베트남에 간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죠. 베트남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실제로 1988년 6월에 미원통상에 취직을 했어요.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베트남 유학준비를 했어요. 호찌민시종합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자본주의권에서 온 유학생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때 알고 지내던 베트남 현지인이 하노이 출장을 가면서 그곳에 있는 대학을 소개해줬는데, 그게 하노이사범대학교 국문과였어요. 선택의 여지없이 나를 석사과정에 받아주는 대학이나 학과면 진학하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문학으로 전환하게 됐어요. 사실 문학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우연히 하게 되었고,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문학을 공부하게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입학 전에 하노이사범대학교에서 책을 6권 보내주면서 읽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짧은 시간에 그런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15~20장 정도를 읽고 학교에 갔는데, 지도교수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의문이 들었는지 질문을 했어요. 그게 거의 입학시험이나 마찬가지로여서 순간적으로 등에서 식은땀이 났는데, 가까스로 대답을 하나 했죠. 그랬더니 지도교수가 책상을 딱 치면서 “바

로 봤다" 그래서 입학 원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수업을 받고 가라고 해서 처음 대면하는 날 수업을 3시간 했어요. 식은땀을 잔뜩 흘린 그 날을 잊지 못해요.



〈사진 2〉 1991년 “전후 베트남 유학 첫 통로”라는 제목으로 배양수 교수의 소식이 보도될 정도로 당시 베트남 유학은 매우 드물었다. 호찌민시종합대학 입학이 승인되지 않아 하노이사범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한 사실도 어려운 시대상을 보여준다. (출처: 배양수)

김: 선생님께서는 1991년 처음 유학을 준비하시고, 1992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유학기간이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와 수교를 시작한 시점을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베트남 현지에 체류하시면서 수교 전후로 한국에 대한 현지의 인식 차이를 체감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지요.

배: 수교 전에도 1987년부터 한국 기업들이 조금씩 베트남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했었죠. 그래도 수교 이후에 베트남에서도 한국을 방문하고 김영삼 대통령도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서로 소식도 알려지고 인적 교류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처음 갔던 1988년 10월 19일은 88올림픽 폐막식 날이었어요. 그때 베트남 사람들은 외국인인 절 보면서 일본인으로 착각해서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 코리안’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올림픽에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구요. 베트남이 올림픽을 중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러시아 방송이 베트남에 방영이 돼서 그 방송을 통해서 올림픽을 봤다

고 해요. 그래서 관료들이나 연배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베트남 시절 1960년대 서울과 사이공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88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했던” 한국의 발전상에 많이 놀랐다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한국보다는 조선공화국으로 알고 있었어요. 한국정부가 요청해서 수교 1년 후쯤에 한국이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를 '한꾸옥(한국)'으로 불러달라고 베트남 정부에 건의했고, 당시 보반끼엣 수상이 제안을 수용해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도 있어요. 수상 보좌관이 한국 대사관의 공문을 받고 수상한테 “수상님, 한국 정부에서 한국으로 불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수상이 보좌관의 생각을 되물으니까 보좌관이 “제 이름이 도안 마잉 자오여서 제가 도안 마잉 자오라고 사람들에게 불러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부를 권리가 있습니까?”라고 해서 수상이 “맞는 말이다. 한국이 스스로를 한국으로 불러달라하면 그렇게 해줘야지”라고 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으로 명명하자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베트남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을 여전히 잘 모르기도 했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한국 경기를 중계하면서 베트남 국영방송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공식적으로 쓰면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백: 수교 이후에는 1세대 유학생으로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외대를 다녔을 때 기억하기로는 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베사모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민간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강화에 힘쓰셨는지 짚어주세요.

배: 부산대 교수 네 명과 저까지 총 다섯 명이 2001년에 베사모를 만들었어요. 부산대 교수들이 1999년~2000년에 프로젝트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하노이에서 저의 지도교수를 만났어요. 지도교수가 정성들여 환영을 해주었고, 그게 고마워서 부산대 교수들이 베사모를 만들자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40만원씩 내서 기금을 만들고, 2002년부터는 회원 확보에 주력했어요. 부산을 방문하는 베트남 학자, 고위 공무원들과 밥을 먹고 선물을 나누면서 교류활동을 시작했죠. 2003년부터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부산출신 유학생의 모임을 만들어

서 서로 격려하는 활동도 했어요. 매년 통일기념일에 베트남을 방문해서 베트남 인사들과 교류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가을에는 베트남 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열었어요. 그때는 사람과 예산이 모두 별로 없어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그런 행사를 진행했어요. 제가 2010년까지 총무이사를 했어요.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그만두었는데, 여기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었어요. 논문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시간을 많이 빼앗겼어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했죠.

東亞日報

dongA.com

I'm Your Big Fan!

전화 02-2020-0114 구독 배달안내 1588-2020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단가14343년 (음력 6월 19일 후일)

A14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전국 포커스

“감사합니다! 부산 베사모”

〈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나이든 교수님과 덩치 크고 베트남어 잘하는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베트남에 오시면 꼭 건너 시 외곽에 있는 저희 집으로 한번 오십시오.” 27일 부산외국어대 베트남어과 배양수 교수에게 한 통의 e메일이 도착했다. 배 교수는 전국에서 유일한 ‘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베사모)’ 총무다. 나이든 교수는 전 부산대 교수인 베사모 이상민 회장. 이들에게 e메일을 보낸 사람은 베트남 호찌민 시 여성신문 기자인 응이아인 씨(36). 그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이 휘두른 흥기에 맞아 숨진 ‘베트남 새댁’ 탁티황응옥 씨(20) 사건을 취재하러 왔던 여기자다. 베사모 회원들이 모은 성금 중 가족에게 전달하지 못한 1500여만 원을 이날 탁티황응옥 씨 가족에게 보낸 데 대해 탁티황응옥 씨의 부모가 전한 감사의 말을 응이아인 기자가 대신 보낸 것.

이 회장은 탁티황응옥 씨 사건이 이달 10일 언론에 보도되자 ‘아차’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고 한다. 2007년 8월 베트남인 후안마이 씨가 충남 천안의 한 지하 셋방에서 남편의 구타로 숨졌을 때 베트남 정부의

격렬한 항의와 베트남인들의 반한 감정이 극에 달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베사모도 아무 역할을 못했다. 이 교수는 11일 혼자서 시신이 안치된 부산 사하구 경희의료원 장례식으로 달려갔다. 가족이 있을 리 없었다. 가족들이 올 때까지

남편에 피살 ‘베트남 새댁’ 상주 역할하고 성금 모아

물심 노력에 反韓감정 녹아 피해자 부모 감사메일 보내

이 회장은 상주를 자처했다. 인터넷에는 “무섭다”거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베트남 이주여성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14일 탁티황응옥 씨 부모가 김해공항을 통해 들어오자 베트남어가 유창한 배 총무가 통역 겸 안내역할을 도맡았다. 상주 역할을 했던 이 회장은 가족들과 의논해 규모가 큰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으로 빈소를 옮



베사모 이상민 회장(오른쪽)이 한국으로 시집와 일주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새댁 탁티황응옥 씨의 어머니 프영티웃 씨와 아버지 탁상 씨에게 회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 베사모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응이아인 기자는 “베트남 사람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준 한국 독지가들의 성의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신랑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판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2002년 부산에서 발족한 베사모는 의사 변호사 교수 상공인 언론인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1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부산=조용희 기자 silent@donga.com

〈사진 3〉 베사모의 활동을 소개한 2010년의 언론보도 자료. “덩치 크고 베트남어 잘하는 교수님”은 배양수 교수를 지칭한다. (출처: 배양수)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하나 있어요. 베트남 유학생이 경성대 못골역 계단에서 밤늦게 넘어져서 허리가 부러진 일이 있었어요. 이 유학생이 보험이 없어서 베사모에서 나서서 해결 했었죠.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6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지불하면 보험을 살려줘요. 그런 일을 베사모에서 처리해서 학생이 무료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 학생이 졸업하고 호찌민시에서 근무하는데, 그 후에도 만난 적이 있어요. 또 다른 일은, 2009년 즈음 베트남 여성이 부산으로 시집을 왔는데 한 달 만에 남편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베트남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어요. 베사모가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을 다 했어요. 나중에 그 여성의 부모가 와서 베사모가 장례식에 필요한 지원도 해줬어요. 그때는 모금도 많이 받았어요.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국가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어요. 베트남에서 기자도 왔어요. **베트남 내에서 악화된 한국에 관한 여론을 완화**하고, 베사모에서 모금한 3천만원 정도를 전달하기도 했어요. 베트남 산악지역의 소수민족 학교에 통나무집으로 기숙사를 지어주기도 했어요.

백: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선생님께서 주로 연구하시는 문학을 포함한 문화 분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교 이후에 베트남의 문화교류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보다 포괄적인 문화교류를 위해서 어떠한 접근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배: 문화 이야기가 나오면 한류는 베트남에서 유행하는데, 왜 베트남 문화는 한국에서 유행하지 않는가에 대해 많이 논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는 억지로 균형을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영화, 드라마, 노래가 한국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억지로 들으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런 **기계적인 균형은 의미가 없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어떤 기획 부분에서는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시나리오를 쓰는 일 등과 같은 일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많이 배워서**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 부문에서도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해서 한국작품을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은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정부에 권유하고 싶은 것은 베트남 문학 번역가들에게 일정 부분의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분야의 정부 간 교류를 촉진하는 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

으로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베트남이 우선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한국 정부도 여기에 호응해서 베트남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사진 4〉 2009년 2월 베트남친선협회로부터 베트남 친선 우호 메달을 받는 배양수 교수.
(출처: 배양수)

백: 신남방정책을 논의할 때 쌍방향 문화교류와 함께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형평성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의도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민간 수준에서 경제, 문화 교류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과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배: 문화교류는 향유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맡겨야 합니다.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베트남 전통예술을 한국인에게 소개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대중문화는 철저하게 선호도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노래가 정말 좋다면 우리 국민들도 좋아하겠죠. 결과적으로 문화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면 안돼요. 베트남에서 제안해서 만든 합작영화가 있었는데 흥행하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베트남 드라마나

영화 모두 정부가 채택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제작자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기만 하면 될뿐, 상영 여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베트남 상업영화들 중에서 나름 흥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트남에서 흥행하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노하우도 쌓이면서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오길 기다려야 해요.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어떤 문화적 요소들을 한국에서 알릴 수 있는지 상상해보는 것도 꽤 어려운 일이에요. 문학 분야도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베트남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다고 해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록문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연구자료 말입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지 못한다고 해도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은 발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번역한 『시인 강을 건너다』 같은 책은 분량이 650쪽 정도여서 읽기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베트남 현대사를 한국과 비교하면서 꿰뚫어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전달되면 좋을 텐데, 직접적으로 느끼기 어렵다면 그런 자료를 읽은 연구자들을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에 관한 편견이 여전한 듯합니다. 앞으로 상호 인식의 전환, 무엇보다 한국의 베트남에 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배: 학생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베트남에서 발생한 좋지 않은 사건이 보도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한국에서 더 심한 사건도 많이 일어났다고요.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엔 유튜버들이 조회수 올리려고 자극적인 내용들을 올리잖아요. 수업시간에 학생들하고 베트남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해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반 정도는 모두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거짓을 만드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보면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100% 거짓말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한-베 현인그룹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²⁾ 건전한 양국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유튜버가 많이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백: 저도 학생들한테 전공생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잘못된 영상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은 정말 필요합니다.

배: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인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일이 있어요. 초기에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의 아이들이 벌써 많이 성장했어요. 아이들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가 성장하면 할아버지가 돼서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아내가 차라리 베트남을 가지고 해서 가도 육체노동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작은 규모로 장사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런 자영업자들이 모두 어려워져서 아이들 학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자녀들이 한국에 살았으면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다닐 수도 있는데, 베트남에 있는 한국학교는 사립 국제학교 형식이어서 학비를 꽤 지불해야 합니다. 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 정부에서 그런 부분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한-베 현인그룹에서 제안을 했어요. 고등교육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베트남 대학이 한국 대학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고요.

백: 현재 베트남 대학에 한국학 전공이 워낙 많이 생기고, 한 학년의 학생이 200명 가까이 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소수의 대학에서 소수의 정원으로만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양성해야 할 분야가 있을지요? 한국에서의 교육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배: 한국과 베트남 대학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즉,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베트남측에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베트남의 한 대학과 협의를 해서 한국어과를 현지에서 개설하고 우리가 만든 커리큘럼으로 가르쳐서 부산외대의 졸업장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베트남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베트남에

2)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베트남 양국 외교부에서 구성한 한-베트남 현인그룹(Eminent Persons Group: EPG)은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측 현인 5명(정치·외교 2명, 경제·통상 2명, 사회·문화 1명)과 베트남측 현인 6명(정치·외교 2명, 경제·통상 3명, 사회·문화 1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양수 교수는 사회·문화 분야의 전문가로 참여했다.

서 다른 나라 대학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분야가 어문학과 역사학이에요.

부산외대는 베트남어과가 개설된지 30년 정도 됐어요. 지금 약 250명의 부산외대 베트남어과 졸업생들이 베트남 각지에서 살고 있어요. 대부분 한국 투자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해요. 부산외대 베트남어과를 입학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베트남 현지 취업**을 염두에 두고 들어와요. 우리도 현지 취업을 목표로 가르치고, 이 방법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외대에서는 베트남 대학과 상호학점 인정제도를 하고 있어요. 2년을 부산외대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2년을 호찌민시인문사회과학대학교와 하노이사범대학교에서 공부하면 양쪽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 3월에 시작해서 벌써 20년에 접어들었습니다. 2001년 겨울에 학교에서 학생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을 때 베트남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호찌민시인문사회과학대학교 국제교류처장한테 제안을 하고 시범적으로 빨리 시작해보자고 해서 베트남에 협정서 서명을 하러 갔는데 못했어요. 호찌민시 국가대학이라는 조직이 호찌민시인문사회과학대학교 위에 있어서 국가대학교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직접 호찌민시국가대학 부총장을 찾아가서 서명을 받아서 호찌민시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 체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하노이사범대학교에서 270명 호찌민시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248명, **총 518명**의 부산외대 학생들이 베트남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초기에 졸업한 학생들 중에 한국어과 교수가 된 경우도 있어요. 부산외대 베트남어과 입학생은 대부분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입학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년부터는 보내는 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30명을 지원해서 보냈는데 부산외대 수업 개설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백: 그동안 많은 문학작품을 번역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하나만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30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현재의 베트남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도 몇 가지 말씀해주세요.

배: 소설 『시인 강을 건너다』는 베트남어 제목으로 『신의 시대』인데,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궁

금했던 부분들, 특히 북베트남의 현대사를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어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분량이 많았지만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1년 정도 학교에서 보직도 맡지 않고 수업만 하면서 번역에 매진했어요. 2014년 3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번역을 마무리했는데, 출판사를 찾고 기다리면서 그 다음해로 넘어가서 2015년 10월에 나왔습니다.

최근의 베트남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도이머이 이후에 베트남에서 배고픔을 잊은 세대들과 그 전의 세대는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가난하지만 사람들이 더 순박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족해졌지만 그런 순박함보다는 국제무대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학습의 측면에서도 우리와 비슷해요. 요즘 베트남 젊은 사람들도 베트남 문학을 잘 몰라요. 제가 베트남 문학을 이야기하면 거의 모르고 있어요. 학교에 오는 베트남 유학생들도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잘 몰라요.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요즘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예전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시간을 지켜요. 개혁개방 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유입되고 약속도 중요해지면서 시간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백: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베트남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배: 쉽게 생각나는 단어는 베트남은 제게 고향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만큼 포근합니다. 예전에 베트남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나는 하노이의 먼지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노이에 먼지가 많잖아요. 공항에 내려서 시내로 들어갈 때 먼지가 바로 보여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베트남에 왔다는 느낌이 들면서 참 좋아요. 특별한 설명도 필요 없고요. 이런 것이 바로 고향의 느낌이 아닐까 그런 정도예요. 초창기에 베트남으로 유학을 떠나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까지도 모두 괜찮아질 정도의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 배양수 교수가 1991년 1월 15일 교육부에서 베트남 유학허가 통보 공문을 받고도 1년 8개월 후인 1992년 9월에서야 하노이사범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입학 후 2~3개월이 지나도 등록금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던 그런 때였다. 하노이사범대학교에서 먼저 1,200달러로 등록금을 제안했을 때, 배양수 교수는 석사학위 취득까지 모든 기간을 포괄하는 등록금으로 2,000달러를 제시하고 500달러씩 네 차례에 걸쳐서 지불했다고 한다. 체계

가 없던 그 당시 여전히 서로가 낯설었던 베트남과 한국은 미시적 차원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점차 연결되었다.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2022년, 배양수 교수가 재직 중인 부산외대와 베트남의 두 대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졸업장을 취득한 양국의 학생 수가 500명을 넘었다.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비율은 베트남이 32.4%로 중국(24.3%)을 앞섰고, 학위·비학위 과정을 포함하는 전체 유학생 중 베트남이 22.7%로 중국(40.4%)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배양수 교수가 교육부에 유학허가 공문을 받으려 갔던 그 시절, 교육부 직원들은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라면서 베트남 유학을 만류했다. 지금은 한국과 베트남 대학에서 양국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수교라는 공식적인 국가 관계가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였지만, 배양수 교수를 포함한 앞선 이들이 추진한 민간 교류와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노력이 이러한 기회를 만드는 데 미친 영향도 크다.

2022년 12월 5일에 이루어진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면서 무역과 투자 활성화, 첨단산업 분야와 안보 협력 확대, 인적 교류 강화 등을 약속했다.⁴⁾ 2022년 출범한 한-베 현인그룹에서는 지난 12월 1일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의 향후 협력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배양수 교수는 사회·문화 협력을 위해 온·오프라인 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주한국 베트남문화원 신설, 한-베 문화협력기금 조성, 한-베 소사이어티 창립, 연구기관 간 장기 인력 교류, 양국의 상대국민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⁵⁾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93년 수교 1년이 지난 시점, 배양수 교수는 당시 공산당 자문역(사회과학원 부위원장)으로 있던 쩌 박 당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교의 의의를 물은 적이 있다. 쩌 박 당씨는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관계는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그 관계는 나날이 깊어졌고, 발전돼 왔다.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⁶⁾ 이 대답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지만 인적교류가 심화된 현재 경제와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두 지역

3) "교육부 08-31(수) 조간보도자료."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4) 박명기. 2022. “한-베트남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아세안익스프레스. 12월 6일.

5) 박명기. 2022. “한-베트남 현인그룹 큰일 해냈다...수교 30주년 비전 보고서 나왔다.” 아세안익스프레스. 12월 2일.

6) 배양수. 1993. “제2의 ‘베트남 特需’ 길 튼다.” 『시사저널』. 1월 14일.

을 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양국의 협력 강화가 미치는 영향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수교 30주년 이후의 비전이 경제보다는 사람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마친다.

〈Abstract〉

Retrospection and Prospects of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Vietnam: Interview with a Vietnam Expert

Yangsoo Ba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ong-Hun Beak (Dankook University)

Jooyoung Kim (JISEAS)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Vietnam, this issue paper contains an interview with Professor Yangsoo Bae of the Department of Vietnamese Language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ho is the first generation to study in Vietnam and has been striving to foster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s. The story of Professor Yangsoo Bae who studied in Vietnam in the early 1990s when it was not easy to study in the communist society and established himself as a Vietnam expert in Korea, is an interesting window that shows the changes in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Professor Yonghun Beak of Dankook University were specially invited to talk with Professor Yangsoo Bae about private exchange activities,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through education, and the future prospects of Korea-Vietnam relations.

Yangsoo Bae, Yong-Hun Beak and Jooyoung Kim. "Retrospection and Prospects of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Vietnam: Interview with a Vietnam Expert." JISEAS Issue Paper No. 23. (December 22, 2022) Jeonju, Korea.



전북대 동남아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을 수주하여 2019년 9월부터 전략적 지역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동연 이슈페이퍼도 그 일환으로 발행됩니다. 이슈페이퍼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들은 연구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배양수

베트남하노이사범대학교에서 베트남 어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서로 『시인, 강을 건너다』(2015), 『하얀 아오자이』(2006), 『정부음곡』(2003),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2002), 『베트남 법규모음』(1991) 등이 있고, 베트남어로 『미스 사이공』(2009), 『춘향전』(1994)를 번역 출판했다.

백용훈

연세대에서 베트남 북부와 남부 농촌 마을의 보건소와 비공식 복지 비교에 관한 논문으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연구 성과로 “베트남 2021: 새 임기 지도부 출범과 코로나19 4차 유행이 남긴 과제” 등이 있다.

김주영

전북대학교에서 홍콩의 사회적 경제 운동 연구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싱가포르로 연구지역을 확장하고 있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사회운동, 시민사회, 이주노동이다. 최근 연구 성과로는 “MilkTeaAlliance: 온라인 반권위주의 동맹의 합의와 국제연대의 가능성”,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장의 쟁점과 과제: 의료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접근성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발행일자

2022년 12월 22일

발행처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주소 : (5489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제2후생관(건지원) 203호

홈페이지 : <https://jiseas.jbnu.ac.kr/>

이메일 : jbnu.iseas@gmail.com

페이스북 : facebook.com/ISEAS.JBNU

전화 : 063-219-5600 / 팩스 : 063-219-5602